

# 간호교사 교육을 위한 「웍샵」에 다녀와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주최—

李 恩 玉  
<서울의대간호학과 교수>

## 서 론

인류에 대한 간호사업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즉 가정, 학교, 사회단체, 병원, 재활원 및 양노원 등의 각 지역사회에 간호의 손길이 주어지는 것을 현 사회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부응하는 간호전문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학생을 교육시키려면 그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간호학생을 교육시킬 책임이 있는 간호교육자는 어떤 수준의 그리고 어떤 내용의 준비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1973년 12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에서 간호계에서는 처음으로 있었던 간호기술자분위 원회에서 이 지역 내에 간호교사 준비과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1974년 8월 19일 부터 8월 30일까지 2주에 걸쳐 열린 이 「웍샵」에는 서태평양지역 내의 19개국에서 각 1명씩 참석하여 각국의 간호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간호교사교육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주요목적으로 삼고 「웍샵」이 시작되었다.

이 주간의 「웍샵」은 「웍샵」의장인 University of Alberta의 간호교육 고문관으로 계신 Ms. Margaret Steed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간호교육 고문관으로 계신 Ms. Mary Abbott의 빈틈없는 준비와 격려로 흥미롭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 본 론

「웍샵」은 크게 본회의와 그룹토의로 대별할 수 있었으며 본 회의에서는 교육과정계획상의 기본 이념 및 방법, 교육이론 및 간호교사 교육의 제반사항을 다루었고 그룹활동에서는 본회의에서 제기된 기본이념을 주축으로 하여 간호교사의 교육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문단체(간호협회)의 역할, 대학이나 전문학교 수준의 간호교육의 개편 및 간호교사 준비과정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 ▣ 간호협회의 역할

간호협회는 그 단체의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는 간호교육에 관련된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수립된 정책은 관계당국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고 이 정책수행이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한 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간호협회는 보다 폭넓고 민주적인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을 통해 간호전문단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파악하고 다른 전문단체와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상부상조해야 한다. 또한 간호협회는 보다 많은 회원의 확보, 경제적인 자금의 확보 및 지도력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건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기본적인 방법은 역시 교육을 통해 개개인에게 전문단체에의 참여의식을 길러주는 것이다.

### ▣ 대학, 전문학교 수준의 간호교육의 개편

각국의 간호교육은 졸업생으로 하여금 그 국민의 건강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간호원을

기르기 위해 정규 간호교사 준비과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위해 간호교육기관은 대학종토 내에 존재하면서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입학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유지하여 훌륭한 간호원을 배출하기 위해 학교는 확고한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입각하여 간호이론과 실습을 통한 학습경험을 부여하는 즉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시해야겠으며 학교는 융통성있고 변화성있는 교육계획 및 교육공학이 응용되도록 대학내의 타학과와 긴밀한 연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학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분한 도서관의 비치라고 볼 수 있겠다.

#### 간호교사 준비과정의 설립 및 운영

우선 국가가격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마나라」에 있는 WHO서태평양 지역지부 앞에서의 필자

① 국내에 어떤 수준의 과정이 얼마나 현존하는가? ② 얼마나 많은 간호원이 어떤 분야에서 더 길게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③ 이런 과정을 설립한다면 이를 운영하기 위해 얼마만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필요하며 또 허용되는가?

그 다음으로 간호교사 준비과정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간호교사 준비과정은 다른 전문직에서의 교사준비과정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간호교사의 준비를 위해 간호대학졸업생에게 부여되는 대학원 과정이나 전문학교 수준의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정규준비 과정이 대학종토

내에 존재해야 하며 이런 과정은 간호교육자, 간호행정가 간호전문가로 교육시켜야 한다. ③ 현 단계에서 대학내에 이런 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에서는 장차 대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다. ④ 간호교사준비과정이 현재 없고 가까운 상태에도 불가능한 국가에서는 장학금을 지불하여 선진국 또는 서태평양지역 내에 있는 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⑤ 현존하는 간호교사 준비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교육의 자질을 갖고 있는 간호원을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간호교사 준비과정의 교육과정으로 필수적인 것은 일반교양 교육학의 제반이론 및 실제, 고차적인 간호학 및 연구방법론 등이다. ⑦ 또한 모든 기존 간호교사들이 계속 변화해가는 교육이론, 교육방법론 및 간호이론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대학내에 연수과정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볼때 현재 우리나라의 전문학교, 대학의 교수 중에 간호학교나 간호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가르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학졸업자에게는 간호석사과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3년제 간호학교 졸업자에게는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있지 못한 실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교직에 있는 간호교사에게 논문심사를 거쳐 승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 개인에게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간호의 질(質)이나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들은 간호교육자, 또는 간호전문가로서의 기초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그들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업적은 단순히 승진을 위한 업적에 지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잠정적인 승진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동안은 그들이 참다운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논문준비를 위한 단기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